

<손순매아> 유형의 분포와 해석

노 영 근

(국민대학교 교수)

- I. 서론
- II. 자료검토
 - 1. 중국자료
 - 2. 일본자료
 - 3. 한국자료
- III. 자료의 해석
- IV. 결론

<국문 요약>

이념 또는 종교신념과 같이 뚜렷한 주제의식을 보이는 이야기는 문학적 측면을 밝히기가 매우 곤란하여 대부분의 연구들은 주제론적인 차원에 집중되어 있다. 그 중 효행과 관련한 이야기는 <손순매아> 유형은 효행담의 대표적인 것으로 거론되면서도 효행담 중에서도 특이한 작품으로 인식되었다. 극단적인 효행을 실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전승력은 그리 강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야기의 해결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거에 이뤄짐으로써 이야기의 흥미가 낮아지는 것도 이유의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이야기는 근원적인 부분보다는 효행담으로서의 특이함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가장 간단한 각편과 종교적인 윤색이 가해진 각편이 존재할 정도로 작품의 실상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특이함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시작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1) <손순매아> 유형은 중국과 일본에도 존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특히 발달한 이야기다.

2) 이 유형은 직접해결형과 간접해결형으로 양대별되며, 지명유래로 변형된 유형도 있다.

3) <손순매아> 유형은 영아유기라는 비극적 현실에 바탕을 두고 이뤄진 이야기이다. 가난으로 인한 비극적 현실을 문학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향유자들에게 극적 재미와 심리적인 위안을 주고 있다.

4) 결국 <손순매아> 유형은 효행담이라는 표면 뒤에 영아유기라는 현실의 문학적 해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손순매아, 영아유기, 효행담, 동아시아 유형, 이야기, 구술.

I. 서론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인간은 이야기를 통해 노동 이외의 시간이 주는 무료함을 달래왔다. 어떤 것이건 이야기를 하거나 듣는 그 자체는 즐거움이었고, 이를 통해 인간은 많은 지식을 세대를 초월해서 전달할 수 있었다. 즉, 이야기는 그 자체로 즐거움을 주지만, 한편으로는 즐거움 이면에 존재하는 교훈 또는 교육적인 내용을 전달한다는 것이다. 우주 만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요구되는 행동규범 등에 관한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하겠다. 물론 연장자가 연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야기를 할 경우에 이러한 성격은 강하게 두드러진다. 동년배 사이에서 이뤄지는 이야기일 경우에는 교훈보다는 정보가 전달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야기가 진실 혹은 신뢰할 만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이야기 획득경위를 먼저 제시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으로 미뤄보면, 동년배 사이에서의 이야기도 연장자와 연하자 사이에서 이뤄진 것에 바탕을 두고 이차적으로 이뤄진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교육적인 내용의 전달을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이야기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향을 밝히는 것은 이야기의 행간에 감춰진 교육적 성격을 드러내는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야기가 목적을 명백하게 담고 있는 경우에 우리는 그 이야기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있는 주제 때문에 그 이외의 것을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점으로 인하여 더이상의 논의를 진행시킬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그 메시지는 충, 효, 열과 같이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규범이거나, 사찰연기로 대표되는 종교적 권능의 확인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새로운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은 절대화된 규범에 대한 거부와 종교적 권능의 부정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항을 전제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관점을 달리해서 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실마리를 찾게 된다. 바로, 이들이 모두 ‘이야기’라는 점이다. 즉, 이야기가 갖고 있는 보편성에 종교 혹은 규범이라는 특수성이 개입되어 이뤄진 것이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교훈적인 이야기는 모두 교훈성과 이야기성이라는 두 측면을 갖고 있으며, 이중 이야기성이 교훈성에 우선한다는 일반론적인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강한 메시지성에 가리워진 이야기성을 회복시킴으로써 이들 이야기가 갖고 있는 문학적인 측면을 온전히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교훈담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읽음으로써 이들에게 교훈보다 더 근원적인 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교훈담이 강력한 교훈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의 근원을 그려내는 일이기도 하다. 결국 교훈담에 속하는 이야기들도 교훈소를 제외한 이야기 요소들에 진정한 문학적 성취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교훈소를 제외하고 서사 자체에 집중한다면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이 열린다고 하겠다.

우리의 이야기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효행관련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한다. ‘효’라는 규범성이 또렷하게 보임으로써 효행담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내포되어 있는 효 관념의 정체나 효행담의 양상 등에 관한 것으로, ‘효도’라는 틀 안에서만 이야기를 파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고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야기는 더욱 그 자체로 권위를 인정받게 됨으로써 구연자의 자유로운 상상이나 참여를 제한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본고가 다루려는 <손순매아> 유형¹⁾의 경우, 그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

1) ‘자식 묻다 석종 언은 효자’(정운채 외, 『문학치료서사사전』 3, 문학과치료, 2009, 2569쪽)로 유형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 명칭은 너무 설명적이라는 점에서 유형명칭으로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각편의 제목을 토대로 ‘손순매아’로 유형명을 사용하였다.

로 보인다. 『삼국유사』 ‘효선’편 이후 여러 문헌들에 실리면서 이 이야기는 모범적인 효행의 표본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구전되는 상황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더욱이 이 이야기는 ‘씨족’과 ‘지역’이라는 강력한 두 체제를 전승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이론의 여지없이 강력한 메시지를 현재도 전하고 있다. 즉, 이야기가 갖고 있는 한 면만이 강조되어 ‘이야기’로서의 특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손순매아> 이야기를 위해서도 좋은 일은 아니다. 이야기가 이야기로서의 특성을 상실하여서 더 이상 청중들의 환호를 받을 수 없게 될 운명이기 때문이다.²⁾ 따라서 본고는 <손순매아> 이야기가 갖고 있는 이야기로서의 특성에 집중하려 한다. 이를 위해 한, 중, 일의 자료를 검토하여 그 유통관계를 살피고, 자료를 좀 더 짚진하게 살펴서 이야기로서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II. 자료검토

<손순매아>가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이뤄진 이야기라는 것은 본문의 기록³⁾ 외에도 일찍이 손진태의 연구⁴⁾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견이 없는 듯 하다. 따라서 앞선 연구자들의 성과를 받아들여서 중국자료를 검토하고, 이 자료가 전해진 것으로 보이는 일본자료를 검토하기로 하겠다.

1. 중국자료

중국의 자료는 현재까지 살펴본 바로는 문헌에만 전할 뿐 구전되는 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中國民間故事集成全國編纂委員會가 1992년부터 2008년까지 펴낸 『中國民間故事集成』에도 광거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

2) 김환성, <희생효 설화> 중 살아 행위 설화에 대한 아동의 윤리 인식 태도 연구, 명지대 석사논문, 2005 참조.

3) 王曰 昔郭巨墜子 天賜金釜(일연, 이재호 역, 『삼국유사』, 솔, 1997, 420쪽.)

4)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4, 50-54쪽.

고, Eberhard나 丁乃通의 『중국민간고사유형색인』에도 광거의 이야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구전물로서의 생명은 끝난 것은 아닌가 보이기도 한다. 다만, 조선족 자료 중에서 이 유형의 자료가 두 편⁵⁾이 있으나, 이는 광거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아니다. 조선족의 자료는 효순한 며느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자료와 친연성을 보여 준다. 이는 移住에 의해 우리나라 자료가 이동한 결과라고 보인다.

광거의 이야기가 구전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중국에서 광거가 잊혀진 인물이라는 것은 아니다. 중국에서는 광거의 무덤이 산동성 장청현 효당산 위에 있다고 하여서 그가 실존인물임을 부각시키고, 나아가 이야기의 사실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손씨 문중에서 자신들의 조상으로 손순을 숭앙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황하유역에서 유행했던 도정극의 한 편으로 <郭巨埋兒>가 있는 것⁶⁾으로 보아 어느정도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⁷⁾ 광거에 대한 중국의 기록은 모두 여섯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광거가 부모를 위하여 아들을 죽였다. 그리고 철권에 새겨진 많은 것을 내려받았다.⁸⁾(晉 葛洪 撰『抱朴子 內篇』<微旨>

(2) 광거는 용려隆慮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하내온 河內溫 사람이라고 한다. 형제가 셋으로 일찌기 아버지를 여위었다.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두 동생이 재산분배를 원했다. 2천만전을 두 동생에게 각각 1천전씩 나눠주었다. 광거는 오

5) 「효부중」(중국민간문예연구회연변분회 편, 『민간문학자료집』 4, 1984, 33-39쪽), 「효순한 며느리가 금을 얻다」(배영진 수집 정리, 『金德順故事集』, 상해문예출판사, 1982, 428쪽.)

6) 중국비물질문화유산 홈페이지 http://www.ihchina.cn/inc/guojiaminglunry.jsp?gjml_id=215 참조

7) 이러한 이야기가 구전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로 그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유교와는 다른 이념이 도입되고 자리잡은 중국의 근현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지않을까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8) 郭巨煞子爲親 而獲鐵券之重賜(洪 撰『抱朴子 內篇』<微旨>). 이하 중국자료 중 문헌의 내용은 祁連休, 『中國古代民間故事類型研究』, 河北教育出版社, 2007의 것을 재인용하였다.

직 어머니와 객사에서 살며 부부가 고용살이하러 어머니를 모셨다. 얼마 후, 처가 아들을 낳았다. 객거는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아이가 어머니를 모시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는 것이 첫번째고, 어머니가 음식이 생기면 손자와 나누길 좋아해서 음식이 줄어들는 것이 두번째다. 이에 땅을 파고 아이를 묻으려하다가 돌함을 얻었는데 그 밑에는 황금 한 솥이 있었고 그 가운데 붉은 글씨로 “효자 객거. 황금 한 솥을 쓰라고 너에게 주노라”라고 써 있었다. 이에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다.⁹⁾(晉 干寶, 『搜神記』 11卷 “郭巨”)

(3) 객거는 하내온河內溫 사람이다. 처가 아들을 낳았는데 상의하여 말했다. “아들을 기르면 일을 할 수 없어서 공양을 드리는데 방해가 되니 죽여 묻음이 어찌 마땅하지 않으리오.” 가래로 땅을 파자 황금 한 솥이 있었고, 그 위에 철권이 있어 “황금 한 솥을 효자 객거에게 주노라” 라고 써 있었다.¹⁰⁾(徐廣 撰, 『孝子傳』 “郭巨”)

(4) 객거는 하내온인으로 상당한 부자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이천 만전을 둘로 나눠서 아우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오직 어머니 공양하기를 택했다. 살던 곳에서 가까이 있는 아무도 살지 않는 흉가에서 살면서 함께 받들며 아무 걱정없이 지냈다. 처가 아들을 낳자, 그 아이를 기르면 어머니를 공양하는데 방해가 될까 걱정하였다. 이에 아내에게 아이를 안으라고 하여서 땅을 파고 묻으려고 하였는데, 땅 속에서 금 한 솥을 얻었다. 그리고 금 위에 철권이 있었는데 “효자 객거에게 주노라”라고 써 있었다.¹¹⁾(釋道世 編 『法苑珠林』, 卷49 「忠孝篇」)

(5) 옛날에 郭巨가 있었으니 자는 文氣고 河內 사람이다. 집이 가난하였고, 어머니 모시기를 지극한 효로 하였다. 객거는 아들이 한 명 있었는데, 나이는 두

9) 郭巨, 隆慮人也, 一云河內溫人. 兄弟三人, 早喪父. 禮畢, 二弟求分. 以錢二千萬, 二弟各取千萬. 巨獨與母居客舍, 夫婦傭賃, 以給供養. 居有頃, 妻產男. 巨念與兒妨事親, 一也; 老人得食, 喜分兒孫, 減饌, 二也. 乃于野鑿地, 欲埋兒, 得石蓋, 下有黃金一釜, 中有丹書, 曰: “孝子郭巨, 黃金一釜, 以用賜汝.” 于是名振天下

10) 郭巨, 河內溫人. 妻生男, 謀曰, 養子則不得營業, 妨于供養, 當殺而埋焉. 鍤入地, 有黃金一釜, 上有鐵券 曰, 黃金一釜, 賜孝子郭巨.
송사가 찬한 『효자전』과 서광이 찬한 『효자전』에도 이에 관한 기록이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내용이 간략하게 되어있다.

11) 郭巨 河內溫人 甚富. 父沒 分財二千萬爲兩 分弟 已獨取母供養. 住自比隣有凶家 無人居者 共推與居無患. 妻生男 慮養之則妨供養. 乃令妻抱兒 已掘地欲埋之 于土中得一釜金 金上有鐵券 曰 賜孝子郭巨

살이었다. 광거가 처에게 말하였다. “지금 이와같이 가난하고 노모의 나이는 많으시니 부지런히 봉양하지만 편치 않으실까 걱정이다. 맛있는 것이 있으면 매번 아들과 나누어서 어머니가 주리고 여위게 하는 것은 이 아이 때문이다. 아이는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다시 볼 수 없다. 이제 우리 함께 아이를 죽여서 어머니를 살리자.” 아내가 남편의 말을 쫓고 감히 어기지 못했다. 그 아내가 아이를 안고 후원 나무 밑으로 가서 아이를 죽이려고 하였다. 광거가 땅을 파고 아들을 묻으려고 아내에게 말했다. “아직 죽지 않았는가?” 아내가 더 지체하지 못하고 해하니 죽었음에 틀림없었다. 광거가 땅을 한 자를 파자 황금 한 솔이 나왔고 솔 위에 새겨져 있기를 “하늘이 효자에게 주는 금이다. 광거는 아들을 죽여서 어머니를 살렸으니 이에 황금 한 솔을 내리노라. 나라에서 빼앗을 수 없고, 개인이 가져갈 수 없다.” 라고 하였다. 금을 보고는 놀라고 이상하게 여겨서 그 처를 부르니 처가 아이를 안고 와서 보았다. 아들은 죽지 않고 잘 지낼 수 있게 되어 처는 이에 기뻐하였다. 이 이야기가 현에 전해지고, 현에서는 주에 올리고, 주에서는 대성에 올리고, 천자께서 금을 광거에게 돌려줘서 그 어머니를 공경하게 하고 그 정려문을 세워서 그 효행을 표하여서 만대에 전하게 하였다. 후한 사람이다.¹²⁾(句道興, 『搜神記』, 「郭巨」)

(6) 광거의 자는 대거(大舉)이고 하내(河內) 사람이다. 집이 가난했으며 어머니를 지극히 섬겼다. 아내가 아들 하나를 낳아서 나이가 세 살이었다. 광거가 처에게 일러 말하기를 “집이 이처럼 가난해도, 굶주리는 시기에는 노인께 음식을 대접해야 한다. 어머니를 공양하지만 여전히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 다시 어린 아이가 어머니와 음식을 나누기 때문이다. 아들은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얻지 못한다. 함께 아들을 묻어서 어머니의 생명을 온전히 하지 않겠는가?” 처가 감히 어기지 못하고 남편의 뜻을 따랐다. 광거는 가래를 잡고 처는 아이를 안고 후원으로 갔다. 처에게 아이를 죽이라고 하고, 광거는 땅을 팠는데 한 길 두 자 정도 깊이까지 파자 철기 하나가 나왔다. 광거가 숙이고 가까이 보니 솔

12) 昔有郭巨者 子文氣 河內人也。家貧 養母至孝。巨有一子 年始兩歲。巨語妻曰 今飢貧如此 老母年高 供慙孝養 恐不安存。所有美味 每減與子 令母飢羸 乃由此小兒。兒可再有 母難重見。今共卿殺子 而存母命。妻從夫言 不敢有違。其妻抱子往後園樹下 欲致子命。巨身掘地 欲擬埋之 語妻曰 子命盡未 妻不忍即害 必稱已死。巨掘地得一尺 乃得黃金一釜 釜上有銘曰 天賜孝子之金 郭巨殺子存母命 遂賜黃金一釜 官不得奪 私不得取。見金驚怪 以呼其妻 妻乃抱子往看。子得平存未死 妻乃喜悅。遂即將送縣 縣牒上州 州送上臺省 天子下制 金還郭巨 供養其母 標其門閭 以立孝行 流傳萬代。後漢人也。

하나였고, 그 속에는 황금이 가득하였다. 꺾거가 급히 처를 불렀다. 처가 말하기를 “아이를 싸안고 왔습니다.”라고 하였다. 아이는 오히려 살았고, 처는 더이상 견디지 못하고 손을 놓았다. 남편이 처에게 일러 말하였다. “당신 이 솜에 있는 금을 보시오. 그 위에 철권 하나가 있는데 써있기를 ‘천제가 효자에게 황금을 내리노라. 나라에서 빼앗을 수 없고, 개인이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였소.” 꺾거가 금 얻은 일을 놀랍고 괴이하게 여겨서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서 縣에 진상하였다. 縣은 州에 올렸고, 州는 천자에게 알렸다. 천자가 조문을 내려 말하였다. “금을 꺾거에게 돌려주어서 그 어머니를 공양하게 하라.” 이에 표문을 세워서 그 효를 표창하였다.¹³⁾(敦煌寫本『孝子傳』, 「郭巨」)

위의 여섯 개의 자료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가장 간략한 서술은 자료 1)이고 2)와 자료4)는 꺾거가 가난해진 이유가 침부되어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재산을 모두 동생들에게 주었다는 내용이 부가됨으로써 꺾거의 성품을 극단적으로 긍정적이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들 자료는 꺾거의 가난내력이 첨가됨과 동시에 효행서사는 간략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2)보다 4)에서 더 그 묘사가 핏진하게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2)의 기록이 4)로 전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자료3)은 꺾거의 가난이 서술되어 있지 않다. 이로써 꺾거의 행위가 온전히 효심에 의한 발로로 설정되게 된다. 무조건적인 효의 실행이라는 다분히 교조적인 메시지가 강화된 자료라고 하겠다.

자료 5)와 6)은 행위 묘사가 세밀한 것들이다. 다른 자료들이 ‘금을 얻어서 잘 살게 되었다’로 끝나는데 비해 이들 자료는 얻은 금을 관청에 신고하여 천자에게까지 그 사연이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천자에 의해 금이 하사되고 표문이 세워져서 행적이 후대에까지 전해지도록

13) 郭巨字大舉 河內人治. 家貧 養母至孝. 妻生一子 年三歲. 巨謂妻曰 家貧如此 時歲飢虛布德老飲食 供養老母 猶不充飽 更被嬰孩 分母飲食. 子可再有 母不可得. 共卿埋子以全母命不? 妻不敢違 從夫之意. 巨自執鑿 妻乃抱兒來入後園. 後令妻斵子 巨即掘地 才深一丈二尺 掘着一鐵器 巨低視 乃見一釜 釜中滿盈黃金. 巨速招妻. 妻曰 抱兒則至. 兒且猶活 妻不忍下手. 夫謂妻曰 卿見此釜之金 其上有一鐵券云 天帝賜孝子黃金 官不可奪 私不許侵. 巨即得金 警怪不已 乃陳于縣 縣已申州 州與表奏天子. 天子下詔曰 金還郭巨供養其母. 乃表門以彰孝德.

한다. 다른 자료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황금을 깎거나 하늘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사용하는데 비해서 자료 5)와 6)은 다시 그 처리를 천자에게 의뢰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으나 시대와의 관련을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자료 5) 6)이 모두 돈황에서 발견된 것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그 저작시기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자료에 비해 후대의 저작이므로, 이전의 자료들과는 다른 사유체제를 기반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구도홍의 『수신기』가 간보의 『수신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자료들을 새롭게 해석하여 기록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보인 다. 이렇게 본다면, 다른 자료들이 하늘의 뜻으로 대표되는 초자연적 질서에 순응하는 단계의 사상관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자료 5)와 6)에 이르러서는 현실 권력이 초자연적 권위보다 우위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현실권력을 초자연적 권위의 전언에 대한 해석자로 인식하는 관념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자료 5)와 6)은 자연과 인간의 매개자로서의 왕권이라는 관념의 영향을 받아서 이뤄진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구전자료로는 연변지역에서 조사된 조선족 자료가 두 편 전하고 있다. 자료내용은 다음과 같다.

7) 효순한 며느리가 금을 얻다.¹⁴⁾

옛날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무척 효성스럽게 대하였는데, 집이 무척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있으면 아이를 굶기고 먼저 어머니에게 드려서 먹게하려고 하였다. 그렇게 해도 어머니는 배고픔을 남기고 손자에게 주어서 먹였다. 이런 이유로 어머니는 늘 굶주렸다. 어느날 며느리가 남편에게 말했다. “아이는 없어도 이후에 또 다시 생길 수 있지만, 어머니가 만약 굶어죽는다면 갈 곳이 없다. 어머니가 굶어죽는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이를 물어 버려야 한다.” 남편도 그렇게 생각해서 둘이 아이를 엮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들이 적당한 곳을 찾아서 파기 시작했다. 갑자기 땅속에서 커다란 항아리 하나

14) 배영진 수집 정리, 『金德順故事集』, 상해문예출판사, 1982, 428쪽.

가 나왔다. 뚜껑을 열고 들여다 보니 그것은 커다란 금항아리였다. 이번에 아들을 묻을 필요가 없어지고, 이들 찾은 금을 가져다가 어머니에게 입을 것을 사주고, 맞난 것을 사주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효성으로 공경하여서 좋은 보답을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8) 「효부중」¹⁵⁾

1. 젊은 부부가 어머니를 지성으로 모신다.
2. 세 살 된 손자가 할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다.
3. 부부가 손자를 말리면 할머니가 화를 낸다.
4. 며느리가 아들을 죽여서 어머니를 잘 모시자고 한다.
5. 남편도 동의한다.
6.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들어간다.
7. 적당한 장소를 찾아 부부가 땅을 판다.
8. 깊이 파자 금종이 나온다.
9. 마을로 가져오자 모두들 쳐보자고 한다.
10. 종소리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화목해진다.
11. 이 소문이 임금께 들린다.
12. 임금이 종을 궁궐로 가져오게 한다.
13. 온 나라가 화목해진다.
14. 임금이 금종의 내력을 듣고 효부중이라고 한다.
15. 가족을 궁궐에 데려다가 호의호식하게 한다.

이 두 자료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며느리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효행의 주체가 며느리로 설정된다는 것은 효행이 남성 뿐 아니라 여성에게도 중요한 덕목으로 권장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성들의 이념이었던 충효가 여성에게도 확대 적용됨으로써 여성도 유교적인 충효이념을 구현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 것이다. 이러한 관념이 상당히 후대에 형성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자료 7)과 8)은 비교적 늦은 시기에 형성된 자료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료 7)은 비교적 우리 자료와도 유사성을 보이는 내용이다. 또

15) 중국민간문예연구회연변분회 편, 『민간문학자료집』 4, 1984, 33-39쪽.

한 하늘이 효자에게 보상을 준다는 언명이나, 임금의 下賜 등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민담 본연의 모습에 더 가깝다고 하겠다. 이는 김덕순이라는 특정한 이야기꾼의 구술을 그대로 정리하였기에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이에 비해 자료 8)은 이야기가 서사적으로 윤색된 모습을 보여준다. 며느리의 이야기로 바뀌어 있는 점과 황금종이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가 영험한 효험을 갖는 다는 점, 그리고 황금종은 효행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를 화목하게 하고 있다는 점 등 원래의 이야기에 윤색이 가해진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자료집이 만들어 지는 과정에서 학술적인 동기 이외의 것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따라서 자료 8)은 유형 자료로서의 가치보다는 서사적인 변개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2. 일본자료

최인학은 한국민담 유형목록을 만들면서 손순매아 유형을 2. 본격담 Ordinary Folk-tales 중 12. 자녀의 효성Filial Piety 이야기에 속하는 것으로, 유형번호 387번 아들을 묻으려한 사람The Man Who Wanted to Bury His Son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면서 이 유형과 동일한 일본유형으로 이케다 히로코가 분류한 516D번과 세키 게이코의 일본석화집성 666B번을 제시하고 있다.¹⁶⁾ 그런데 Ikeda-At 516D와 Seki Shusei 666B의 제목은 각각 ‘아이의 간이 실명을 치료하다Child's Liver Cures Blindness 子供の肝¹⁷⁾’와 ‘아이의 간子供の胆¹⁸⁾’으로 손순매아와는 다른 이야기이다. 우리 민담에서는 <동자삼> 유형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손순매아와 동일한 자료가 일본 구전자료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꼭거의 이야기도

16) Choi In-Hak, *A Type Index of Korean Folktales*, Seoul:Myong Ji Univ. Publishing, 1979, 166쪽.

17) Hiroko Ikeda, *A Type and Motif Index of Japanese Folk-Literature*, Helsinki:FFC 209, 1971, 143쪽.

18) 關 敬吾, 『日本昔話集成』 제3부 笑話 2, 角川書店, 昭和33년(1958), 810-814쪽.

일본민담에서 찾을 수 없었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건 꼭거 이야기는 일본에 전해졌을 것이다. 꼭거 이야기가 실려있는 『法苑珠林』이 일본에 전해졌기 때문이다.¹⁹⁾ 『法苑珠林』의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今昔物語集』 권9에 꼭거의 이야기가 전하고 있다.

옛날 중국의 □대에 하나라고 하는 곳에 꼭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있었다.

꼭거는 부지런히 어머니를 모셨지만, 가난해서 늘 굶주렸다. 그래서 먹을 것을 세 쪽으로 나눠서 어머니, 자신, 처가 한쪽씩 먹었다. 이렇게 몇해 동안, 노모를 모시는 사이에 처가 아들 하나를 낳았다. 그 아이가 점점 자라 6, 7세 되어서는 셋으로 나누던 음식을 넷으로 나눴다. 그러나, 어머니의 음식은 점점 적어졌다. 꼭거가 탄식하면서 아내에게 말했다.

“그 동안 이 음식을 셋으로나눠 어머니를 모시기에도 적었다. 이제 아들이 생기고 나서 넷으로 나눠서 더 적어졌다. 나는 반드시 어머니를 모셔야겠다고 생각해서 ‘노모를 모시기 위해서는 이 아들을 묻어 없애자’고 생각한다. 이것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도 전적으로 어머니를 위해서다. 당신은 슬퍼하지 마라.”

아내는 이 일을 듣고 눈물이 비오듯하면서 대답하여 말하였다.

“아이를 생각하는 일은 부처도 아들 하나의 가여움을 비유해서 설명하여 말했다. 나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다가 때마침 아들 하나를 얻었다. 품안의 것을 놓아주는게 오히려 마음의 슬픔이 더 깊다. 하물며 먼 산에 가서 묻고 돌아오는 일이야말로, 가이 비유할 것을 생각하지 못하겠다.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 효양하는 마음 당연히 깊이 생각하고 하려는 일을 내가 방해한다면, 하늘의 책망을 피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당신에게 말긴다. 그때에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아내의 말을 들었다. 아내는 아들을 품고, 남편은 꿩이를 들고 멀리 떨어진 깊은 산으로 가서 아들을 파묻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팠다. 세 자 쯤 팠을 때, 바닥에 꿩이의 날에 딱딱하게 부딪히는 물건이 있었다. 돌인가

19) 『法苑珠林』은 우리나라의 『高麗大藏經』에 수록되어 있다. 이것이 일본으로 전해져 중국 기록들과 합쳐서 東京弘教書院에서 간행한 『大日本校訂大藏經縮刷藏本』이 된다. 여기에 敦煌寫本 등이 결합되어 大正一切經刊行會가 편찬한 『大正新修大藏經』이 만들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法苑珠林』의 내용이 일본으로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ja.wikipedia.org/wiki/大正新脩大藏經과 船山徹 「大正藏について」,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附屬漢字情報研究センター編, 『漢籍はおもしろい』, 研文出版, 2008. 참조)

하고 생각하여서 파버려야겠다고 생각하여서 힘껏 깊이 께다. 오히려 재촉하며 깊이 께고 보니가 돌은 아니고 한 말 가랑 되는 황금술이 있었다. 그 뚜껑을 열고 보니 술 위에 제목으로 써 있는 글이 있었다. 그 문장에 하기를 황금술 하나 하늘이 효자 께거에게 내린다고 하였다. 께거가 이것을 보고 내가 효양하는 마음이 깊기 때문에 하늘의 내림을 받았다고 기뻐 눈물흘리며 아내는 아이를 안고, 남편은 술을 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후 이 술을 께치면서 팔아서 노모를 봉양하였다. 살아가는데 모자라는 일이 없어서 곧 부귀한 사람이 되었다. 그때에 국왕이 이 일을 듣고서 께이한 일을 이룬 께거를 불러서 그것을 물었더니 께가가 전에 있었던 일을 진술하였다. 국왕이 듣고 놀래서 금술을 불러서 보았더니 진짜로 그 글이 나타나있었다. 국왕이 이를 보고서 눈물을 흘리며 존경하면서 갑자기 나라의 중요한 자로 사용하였다. 세상 사람들 또한 이것을 듣고 효양을 존경하는 일이라며 칭찬하면서 말을 전하였다.²⁰⁾

중국의 이야기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내용은 중국의 것과는 약간 다르게 변형되어 있다. 우선, 주인공의 어투가 중국기록에는 ‘여자가 감히 어기지 못해妻不敢違’라고 표현하여 순종하는 여성의 모습을 엿보게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기록에서는 남편이 “당신, 슬퍼하지 마라汝、惜ミ悲ム心無カレト”라고 명령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남편이 자신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여성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그것을 여성이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에 비해 여성의 모습이 상대적으로 더 수동적으로 그려지고 있다고 하겠다.

일본 자료에서는 효행의 결과로 얻는 것이 황금이 든 술이 아니라 황금 술이다. 그래서 술을 께서 팔아서 살았다고 설정이 바뀌어 있다. 이는 중국자료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황금이 든 술’을 ‘황금술’으로 오역한 결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뒤에 이어지는 내용도 ‘술을 께서 팔았다’로 앞의 정황에 맞춰서 변형되게 된 것이다.

중국자료와의 차이는 천자의 역할에서 두드러진다. 즉, 중국자료 5)와

20) 중국의 께거가 노모에게 효도하여 황금 술을 얻은 이야기震旦、郭巨 孝老母得黃金釜語 第一(正宗敦夫 編纂, 『今昔物語集』(上), 日本古典全集刊行會, 昭和7年(1925), 352-353쪽.)

6)에서와 같이 자연신격보다 우월한 모습으로 그려지던 것이 일본자료에서는 자연신격의 행위를 추인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자연신격은 현실권력에 대해 여전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자료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듯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자신들의 정황에 맞게 수정되어 기록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 자료는 중국의 자료를 그대로 移記해 놓았다는 한계를 갖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은 한자문화권에 속해 있으면서 중국의 사상적인 영향에 놓여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극단적인 충성이 권장되며, 동시에 효행도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순순매아> 유형의 이야기는 전승되지 않는 이율배반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영아유기 혹은 영아살해와 관련하여 <순순매아> 유형의 이야기가 전승되고 있는 중국과 한국과 비교했을 때, 명백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영아살해를 대하는 방식의 차이이다. 중국과 한국은 영아시기에 죽은 영혼에 대해서 특별한 제의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라는 말과 같이, 그 슬픔을 개인화, 내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일본은 살해된 영아의 영혼을 위로하는 미쯔코(水子) 공양²¹⁾이 있어서, 그 슬픔을 표출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일본은 영아살해에 관한 서사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의례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3. 한국자료

<순순매아>는 『삼국유사』에 실린 것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다. 신라 시대에 있었던 일이라고 기록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이야기는 신라 이전에 이미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 전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여러 교훈서와 문집등에 실려 있고, 민간에 구전물로 전해지고 있다.

21) 이에 관해서는 최길성, 「일본의 미쯔코(水子)供養과 동아시아의 男兒選好」, 『비교민속학』 16집, 비교민속학회, 1999, 195-210쪽 참조.

구연자 중에는 이 이야기가 『명심보감』에 실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종합하면 이 이야기가 구전되다 문헌에 기록되면서 문헌과 구비의 두 방식으로 구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는 중국, 일본과 달리 기록만이 아닌 구전물로도 상당수가 전해지고 있다.²²⁾ 또한 그 내용이 기록으로 전하는 손순의 이야기와 사뭇 다른 것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이 이야기 유형이 <손순매아> 기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구비문학대계』만을 살펴도 전국적으로 다음의 26편이 채록되어 있다.

- 1) 손순의 돌종 (1-4, 의정부시 호원동 10, 251-254.)
- 2) 효자와 돌종 (1-9, 포곡면 2, 87-91.)
- 3) 효성이 지극한 아들 (2-3, 근덕면 4, 676-678.)
- 4) 효성이 지극한 부부와 석종(石鐘) (2-8, 영월군 영월읍 220, 780-781.)
- 5) 하늘 종(鍾) (2-8, 영월군 하동면 24, 142-143.)
- 6) 효자는 복 받는 법 (3-2, 모충동 15, 376-377.)
- 7) 식장산 전설 (4-2, 진잠면 3, 627-629.)
- 8) 아들 생매장하려다 금을 얻어 부모를 봉양한 효자 (5-2, 삼례읍 25, 784-785)
- 9) 효자와 효부 (5-6, 태인면 73, 354.)
- 10) 손순과 효자 (6-11, 화순군 한천면 67, 203-206.)
- 11) 손순의 효성 (6-4, 승주군 주암면 29, 475-477.)
- 12) 하늘이 내린 효부 (6-7, 비금면 13, 721-723.)
- 13) 효성이 지극한 내외 (6-7, 신안군 증도면 10, 366-367.)
- 14) 자식 파묻다 금독야지 얻은 효부 (6-9, 화순군 화순읍 19, 71-72.)
- 15) 효자 손순 (7-1, 월성군 현곡면 124, 324-327.)
- 16) 효자 손순(1) (7-1, 월성군 현곡면 2, 33-34.)
- 17) 효자 손순(2) (7-1, 월성군 현곡면 3, 35.)

22) 물론, 기록물의 양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상당하다. 이들 문헌기록에 대해서는 이미 선학들의 연구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임재해, 「손순매아 설화의 전승현장과 전승상황」,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1, 신라문화선양회, 1990과 정운룡, 「『三國遺事』 ‘孫順埋兒’條로 본 新羅人の孝心」,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3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소, 2009 참조.)

- 18) 효자 손순 (7-1, 월성군 현곡면 50, 118-121.)
- 19) 효성이 지극하여 복 받은 사람 (7-13, 대구시 94, 382-385.)
- 20) 아들을 생매장하려 한 효자 (7-15, 선산군 무을면 13, 480-481.)
- 21) 효자와 방울 (8-11, 의령군 정곡면 34, 171-173.)
- 22) 복골 효자 (8-13, 울주군 두동면 26, 309-314.)
- 23) 효자 손순 (8-5, 거창군 가조면 4, 992-999.)
- 24) 효자손순 (8-8, 밀양군 산내면 42, 602-603.)
- 25) 효자와 금복 (8-8, 밀양군 삼랑진읍 45, 184-185.)
- 26) 효도 담 (8-9, 김해군 이북면 54, 801-802.)

이들 자료는 다음 서사단락을 공유하고 있다.

- ① 효자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도입)
- ② 아들이 어머니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다.(문제)
- ③ 아들을 죽이기로 한다.(해결)
- ④ 파문으려고 땅을 판다.(시도)
- ⑤ 땅에서 금이 나온다.(결과)

이를 기본 서사단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본 서사단락으로 이뤄진 자료는 7), 12), 13), 14), 20), 26)이다. 이들 자료의 특징은 땅에서 나온 물건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접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이다. 즉, 가난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가 출토물로 인하여 일거에 해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직접해결형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범주에 있으면서 그 해결이 다르게 이뤄지는 작품도 있다. 자료 21번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아이가 방울소리를 듣느라고 할머니의 음식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어 어머니를 보양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이 자료에는 애초에 가난이란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기에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갈등이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이 자료의 연장선상에 자료 18이 있다. 이 자료에서 출토된 돌종은 신호 역할을 한다. 아이가 노모와 같은 밥상에 앉는 것을 방지하여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임금이 등장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해결된 문제의 근원이 되는 문제를 임

금의 조치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좀 더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해결형에 속하면서 도입상황과 이웃의 모방담이 결합된 경우가 자료 19번이다. 양자로 보낸 자식이 효자가 된다는 서사가 본서사에 앞서서 제시되고 있으며, 이웃이 흉내내자 뱀이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후일담처럼 이어진다. 이는 주인공의 효행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다른 삽화를 첨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직접해결형과 관련을 맺으면서 갈등을 극단적으로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 자료 3, 8, 9이다. 이들 자료에서는 아이의 역할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생매장되거나 버려지면서 신체적인 고통을 호소함으로써 보물이 출토되도록 하고 있다. 다른 자료와 달리 아이를 살해하기 위한 행위가 실제 진행된다는 것도 이들 자료의 특징이다. 위기와 결말간의 격차가 크게 만듦으로서 이야기는 극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가장 각편 숫자가 많은 것은 기본 서사단락에 임금의 조치가 해결책으로 제시되는 경우다. 이에 해당하는 자료는 1), 2), 4), 6), 10), 11), 15), 18), 22), 23), 24), 25)이다. 이들은 기본 서사단락에 임금의 조치 삽화가 결합한 형태이며, 이 두 삽화를 이어주는 것은 종, 징, 북 등 소리가 나는 물건이다. 이들은 문제해결을 출토물에 의해서 매개된 절대권력에 의지한다는 점에서 그 해결 방식이 간접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들 자료를 간접해결형이라고 하겠다. 자료 16)과 17)은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지명유래로 결말지어진 것으로, 단순 망각에 의한 것인지 지명유래담으로 변용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전승과정에서 망각이 일어나고, 망각으로 인한 서사적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명과 관련지은 것은 아닌가 추측할 따름이다. 간접해결형과 관련을 맺으면서 그 해결과 서사진행이 차이를 보이는 것이 자료 5)번이다. 두 차례나 살해시도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함으로써 갈등의 해결은 난망해진다. 그때 바위가 부딪치는 소리를 듣고 박문수가 조치를 취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바위가 부딪치는 것은 종소리의 변형이고, 박문수는 어사라는 점에서

임금의 대체물이라고 하겠다. 결국 간접해결형과 같은 서사기반에서 변형을 함으로써 이야기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들을 종합하면 직접해결형과 간접해결형이 있으며 이들의 확대 혹은 변형 각편이 전체 유형군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전물에 한정된 것이긴 하나 중국과 일본에 비해 훨씬 다양한 방식으로 이 유형은 우리 이야기 전통으로 향유되고 있는 것이다.

Ⅲ. 자료의 해석

<손순매아> 유형은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난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 중 부모봉양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이 이야기가 『삼국유사』 효선편에 실려있음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주된 관심은 효행의 방식과 사회적 의미 등에 집중되었다.²³⁾ 물론 『삼국유사』에 실린 <손순매아> 기사가 구원의 문제와 관련있다고 보거나²⁴⁾ 희생제의와의 관련을 밝히는²⁵⁾ 등 효행담에서 벗어나서 이 유형이 갖고 있는 다른 측면을 찾고자 하는 시도들도 있었다. 여러 연구들이 작품과 사회와의 관련을 찾고 있다는 점은 이 유형에 대한 연구가 갖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사회와의 관련이 유효하게 밝혀졌는가 하는 점에서는 의문이다. 여러 연구들이 있어왔지만 정작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의 연구는 오히려 미진한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다. 이에 본고는 작품을 좀 더 세밀하게 읽음으로써 작품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는 향유자들의 욕망을 드러내서 이 유형이 갖고 있는 문학적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23) 손진태를 비롯한 초기 연구자들을 위시하여 김낙효(『희생효설화의 전승양상』, 『한국어교육』 9호, 한국어문교육학회, 1993), 김대숙(『한국설화문학과 여성』, 월인, 2002) 등 많은 연구자들이 효행담으로서의 성격에 집중하고 있다.

24) 강진욱, 「삼국유사 <효선편> 설화연구」, 『국어국문학』 93호, 국어국문학회, 1983, 139-162쪽.

25) 심우장, 「효행설화와 희생제의의 전통」, 『실천민속학』 10호, 실천민속학회, 2007, 175-203쪽.

<손순매아> 유형을 대할 때 드는 의문은 이 이야기가 과연 효행담일까 하는 점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효행의 으뜸은 養志하는 것이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효행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三國遺事』 효선편에 실려있는 <貧女養母>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손순매아> 유형은 이와 정반대 상황에 놓여 있다. 어머니가 아끼고 귀여워하는 손자²⁶를 죽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주인공의 시도가 성공해서 아이를 죽였다면 노모는 자신으로 인하여 손자를 잃었다는 슬픔에 괴로워했을 것이다. 더우기 죽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들이다. 아들을 죽이게 되면 당장은 代를 이을 수 없게된다. 효행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를 가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덕목이다. 그런데 효를 위해 後嗣를 끊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직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중심에 노모가 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들을 죽여 효행을 한다는 것은 효행의 으뜸이라는 養志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결국 표면적으로는 효행을 위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서슴지 않는 ‘出天之孝’의 모습을 하고 있으나, 그 행위는 결코 효행으로 해석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있는 효행이라는 해석을 넘어서는 이면적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독서가 요구된다.

이 이야기를 단계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첫번째 단계는 도입상

26) 여러 자료들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음 자료가 가장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아 그러구러 손순, 아들이 어 ‘만덕’으로 손순이가 늦게서 아들을 두는데, 자기 아들이 첫 분에 한 살 두 살 이래 묵을 때는 아무런 짬도 모르고, 그래 손순이 어마씨가 나이 많아가지고 외아들의 손자가 늦게 뒤둔께 어띠기 귀턴지 손자가 하도 귀해서, 금지 옥엽같이 참 요새 아들 모양으로, 금싸래기 같이 이래 귀이 여기고 이러는데, 국을 띠미기 본다.

한 서 너 살 먹어서 죽을 여막이니 요놈이 그걸 납작납작 받아먹고 이래키운데, 그러구러 네 살 먹은께 한 너덧 살 묵어서 고기를 또 인자 띠막이주지. 이 님이 또 납작납작 받아 묵고 맛나게 묵고, 재미가 나서 그 참 노인 어른이 손자를 귀타고 해서 지꾸 믹이지.(효자 손순, 『한국구비문학대계』 8-5, 가조면 설화 4, p. 994.)

황이다. 모든 도입상황이 그렇듯 손순매아도 안정되어 있으면서 위험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자와 그 효자의 행위를 방해하는 가난이라는 요소가 그것이다. 각편에 따라서 가난이 표면에 등장하기도 하고 행간에 내재하기도²⁷⁾ 한다. 이 둘 간의 팽팽한 긴장을 유지한 채 효자의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이 균형을 깨는 것이 아이의 등장이다. 아이가 생김으로써 가난은 힘을 더하게 되고 효자와의 힘겨루기에서 우위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효자의 행위가 더이상은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된다. 이것이 두번째 단계다. 이 단계에서 이야기는 불균형한 상태에 놓이게 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음 단계가 서사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어지는 셋째 단계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다. 영아살해가 기획되고 실행되는 것이다. 이 과정은 논리적인 모순을 기반으로 결정되고 있다. 자료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이는 또 낳으면 되지만, 어머니는 다시 모실 수 없다’는 논리다. 즉, 아이는 대체물이 가능하지만 어머니는 대체물이 없기에 더 소중한다는 논리이다. 또한 그렇기에 아이는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견 타당하나 아이의 대체물이 원래의 아이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주장은 모순에 봉착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아무런 저항없이 받아들여진다. 어찌보면 논리적인 모습으로 영아살해가 위장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즉, 영아살해를 정해 놓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념이 과도하게 강조되는 논리가 동원되고 있는 것이다. 부모로서 이념만을 위해 자신의 아이를 죽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본능을 넘어서는 이념의 실행은 상당 기간의 훈련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이 단계까지는 모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야기의 불변부로서 이 유형이 이야기로서 존재하기 위한 동력을 제공하고

27) 대부분의 자료에서 직접적으로 가난하다고 말하지는 않으나, ‘나무를 해서 먹고 산다’거나 ‘어렵게 반찬을 마련하면’ 등의 언술을 통해 넉넉하지 않은 살림살이를 알 수 있게 하고 있다.

있는 셈이다. 따라서 <손순매아> 유형의 핵심적인 부분이 가난으로 인한 한계상황과 그 상황의 해결책으로서의 영아살해 기도라고 하겠다. 이 유형이 향유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유는 바로 이 부분이다. 이는 향유자와 공감대가 약하기 때문²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極事實的이어서 그럴 수도 있다. 경험이 서사화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약화되고 이성적으로 경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극사실적인 내용으로 인하여 향유자들이 이야기의 상황을 받아들이기에 감정적인 차원의 영향이 너무 세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누구도 자식을 죽이는 이야기를 속편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그럴 수 있다는 긍정성이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이야기에서 가난으로 인해서 자식을 버리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²⁹⁾ 이는 이야기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빈번히 발생했던 사건이기도 하다. 이러한 정황이 복합되어 이야기는 향유자들이 받아들이기 어렵게 될 정도로 사실적이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실적인 상황이 향유자들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안정되는 것은 초자연적인 살해기도에 대한 결과물이다. 금덩어리가 출토하건 종소리를 들은 임금이 조치를 취하건 상황은 비현실적으로 해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손순매아> 유형은 극사실적인 상황이 초자연적으로 해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서사적으로 불균형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이야기가 형성되고 향유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즉, 문학은 환상이라는 기본적인 명제를 떠올리면 현실적으로 해결불가능한 일을 초현실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 문학의 본령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손순매아> 유형은 인간이 문학을 즐기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유

28) 김대숙, 앞의 책, 264쪽.

29) 『三國遺事』塔像篇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條에 실려 있는 조신의 이야기가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형에 대한 해석 역시 이 원리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앞서 살핀대로 있을 법한 혹은 있었던 일을 공통부분으로 갖고 있다. 영아유기가 그것이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중국, 일본 등 여러 지역에서 영아유기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원인은 흉년으로 인한 기근, 군역의 부담, 그리고 유민의 유랑 등을 들 수 있다. 조선조에서도 유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수양에 관한 규정이 생겨났었다.³⁰⁾ 이러한 遺棄兒에 대한 사례 중 두 가지를 보겠다.

1. 전라 감사 오시수(吳始壽)가 치계하였다.

“떠돌며 빌어먹는 백성들이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이루 셀 수 없이 많습니
다. 옷자락을 잡고 따라가는 예닐곱 살 된 아이를 나무에 묶어 두고 가기도 하
며, 부모 형제가 눈앞에서 죽어도 슬퍼할 줄 모르고 묻어 주려고도 하지 않습니
다. 사람의 도리가 끊어진 것이 이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³¹⁾

2. 김성득은 본래 삼척사람으로 가난 속에서 備賃資生하고 있었다. 온 가족
이 전염병에 걸려 동생 내외는 모두 죽고 7세된 조카아이를 자신이 맡게 되었
는데, 기를 자신이 없어 흙구덩이에 버려 죽게 하였다.³²⁾

두 기록 모두 가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례이다. 여러 사례 중 이들이
눈에 띄는 것은 <손순매아> 유형과 그 장면이 겹쳐지기 때문이다. 사
례 2.는 유형 전체와 사례 1.은 자료 3, 8, 9를 재현해 놓은 듯 하다. 극심
한 가난으로 인해서 최소한의 인륜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할
수 있는 선택은 거의 없을 것이다. 가족이라는 집단을 유지하면서 기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선택은 집단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다. 즉, 최소한
의 구성원으로 집단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견디는 것이다. 이야기가 배

30) 이에 관해서는 김무진의 연구(「조선사회의 遺棄兒 收養에 관하여」, 『계명사학』 4집, 계명사학회, 1993, 47-87쪽)가 많은 도움이 된다.

31) 『현종개수실록』, 38집, 58쪽.

32) 『平安監營審理啓錄』 3, 壬申 3월(변주승, 「조선후기 遺棄兒行乞兒 대책과 그 효과」, 『한국사학보』 3, 고려사학회, 1998, 370쪽에서 재인용.)

경으로 삼고 있는 사회는 농경사회이다. 조선조에 유민이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도 농경사회의 낮은 생산력이다. 즉, 이야기와 현실 모두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집단의 규모를 줄이는 방법 역시 농경사회의 속성에 따라서 이뤄질 것이다.

극심한 飢餓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모의 축소, 즉 성원의 제거가 해결책으로 등장하였다. 가장 가치가 낮은 성원의 제거를 통한 전체 집단의 생존을 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은 가족공동체에 기여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때 기여도는 노동력과 동일한 개념이 된다. 노동력이 약한 성원이 노인과 아이이다. 노인은 평생의 경험을 토대로 농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다. 다른 형태의 노동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해 아이는 농사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육체적 힘도 갖고 있지 못하다. 기여도가 제로인 셈이다. 따라서 노인은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노동력도 경험도 갖고 있지 않은 아이가 제거 대상으로 선택되는 당연한 귀결이 된다. 즉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인 지식과 노동력 중 그 어느것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는 위기상황에서 전체 집단의 생존을 위해 희생을 강요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선택과정은 최소한의 인륜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기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부담이 따른다. 현실의 고난이 클수록 그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환상은 커지게 된다. 즉, 고난과 비례하여 환상은 증가하는 것이다. <손순매아> 유형에서 문제해결이 비현실적인 것은 바로 이것과 관련을 맺고 있다. 이야기만 들어도 불편해지는 상황을 일거에 해결해서 가슴을 쓸어내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비현실성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아이를 묻으려고 판 땅에서 금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아니면 이러한 사정을 나라에서 알아서 잘 해결해주는 것이다. 즉, 신 또는 임금으로 표상되는 인간을 초월한 존재에 의해 일거에 상황이 해결되는 것이다. 아주 단순한 해결책이면서도 가장 근원적인 욕망이라고 하겠다. 결국 <손순매아> 유형은 현실적인 상황을 초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문학 향유의 기본원리에 충실한 작품이라

고 하겠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야기의 향유자들은 영아유기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문학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효행이라는 이념이 개입하여서 그 모든 일이 효행을 위해서라고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실의 문제에 대해 심리적인 위안을 주고 있는 것이다.

IV. 결 론

<손순매아> 유형은 효행담의 대표적인 것으로 거론되면서도 효행담 중에서도 특이한 작품으로 인식되었다. 극단적인 효행을 실행하고 있으면서도 그 전승력은 그리 강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야기의 해결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일거에 이뤄짐으로써 이야기의 흥미가 낮아지는 것도 이유의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이야기는 근원적인 부분보다는 효행담으로서의 특이함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본고는 이러한 특이함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시작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1) <손순매아> 유형은 중국과 일본에도 존재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특히 발달한 이야기다.

2) 이 유형은 직접해결형과 간접해결형으로 양대별되며, 지명유래로 변형된 유형도 있다.

3) <손순매아> 유형은 영아유기라는 비극적 현실에 바탕을 두고 이뤄진 이야기이다. 가난으로 인한 비극적 현실을 문학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향유자들에게 극적 재미와 심리적인 위안을 주고 있다.

4) 결국 <손순매아> 유형은 효행담이라는 표면 뒤에 영아유기라는 현실의 문학적 해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접수일 : 10.08.10 / 심사일 : 10.09.10 / 심사완료일 : 10.09.15

<참고 문헌>

- 강진옥, 「삼국유사 <효선편> 설화연구」, 『국어국문학』 93호, 국어국문학회, 1983.
- 關敬吾, 『日本昔話集成』 제3부 笑話 2, 角川書店, 昭和33년(1958).
- 祁連休, 『中國古代民間故事類型研究』, 河北教育出版社, 2007.
- 김낙효, 「희생효설화의 전승양상」, 『한국어교육』 9호, 한국어문교육학회, 1993.
- 김대숙, 『한국설화문학과 여성』, 월인, 2002.
- 김무진, 「조선사회의 遺棄兒 收養에 관하여」, 『계명사학』 4집, 계명사학회, 1993.
- 김환성, 「<희생효 설화> 중 살아 행위 설화에 대한 아동의 윤리 인식 태도 연구」, 명지대 석사논문, 2005.
- 배영진 수집 정리, 『金德順故事集』, 상해문예출판사, 1982.
- 변주승, 「조선후기 遺棄兒·行乞兒 대책과 그 효과」, 『한국사학보』 3, 고려사학회, 1998.
- 船山徹, 「大正藏について」,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附屬漢字情報研究センター編, 『漢籍はおもしろい』, 研文出版, 2008.
- 손진태, 『한국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4.
- 심우장, 「효행설화와 희생제의의 전통」, 『실천민속학』 10호, 실천민속학회, 2007.
- 일연, 이재호 역, 『삼국유사』, 솔, 1997.
- 임재해, 손순매아 설화의 전승현장과 전승상황,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11, 신라문화선양회, 1990.
- 정운룡, 「『三國遺事』 ‘孫順埋兒’條로 본 新羅人의 孝心」, 『신라문화제학술발표회논문집』 30, 동국대학교 신라문화연구원, 2009.
- 정운채 외, 『문학치료서사사전』 3, 문학과치료, 2009.
- 正宗敦夫 編纂, 『今昔物語集』(上), 日本古典全集刊行會, 昭和7年(1925).
- 중국민간문예연구회연변분회 편, 『민간문학자료집』 4, 1984.
- 최길성, 「일본의 미쯔코(水子)供養과 동아시아의 男兒選好」, 『비교민속학』 16집, 비교민속학회, 199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현종개수실록』

Choi In-Hak, *A Type Index of Korean Folktales*, Seoul:Myong Ji Univ. Publishing, 1979.

Hiroko Ikeda, *A Type and Motif Index of Japanese Folk-Literature*, Helsinki:FFC 209, 1971.

중국비물질문화유산 홈페이지

http://www.ihchina.cn/inc/guojiaminglunry.jsp?gjml_id=215

Abstract

A Study on Distribution and Analysis of <Son-Sun-Mae-A> type / Nob, Young Keun

<Son-Sun-Mae-A> type is representative case of filial conduct narratives and the same time, it is treated as special case of filial conduct narratives. Because, although it describe the extreme filial act, its power for transmission seems not strong. And the problem is solved by super natural way, so the attraction of the story is became low. Because of these reasons, many reserach is focused on specification as filial conduct narratives, than more basical aspect of this type. So this article focus on the cause of this specific aspect. And the results, I can come to a conclusion as follows.

1) <Son-Sun-Mae-A> type founded in China ans Japan, but specially, it developed in Korea.

2) This type devided into two sub-type; Direct solve and Indirect solve, and it transform a story of origin of place name.

3) <Son-Sun-Mae-A> type is based on Infant Abandonment, the tragical reality. According to solve the tragic reality, cause by poverty, by literary, this type give dramatic interest and psychological consolation to enjoyed person.

4) So, <Son-Sun-Mae-A> type has the meaning that literal solution of actual problem behind the surficial meaning that filial conduct narrative.

Key words: <Son-Sun-Mae-A> type, abandoned child, filial conduct narrative, East Asia type, narrative, oral statement.